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이동: 패턴과 추세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차 중 천*

이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회이동을 분석하려고 한 시론적 시도이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내의 불평등조사와 일본의 SSM조사 및 미국의 OCG-II조사의 그것들과 비교함으로써 일일이 구체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였다. 특히 통과모수모형과 열효과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는 노동패널 자료의 그것이 여타 자료의 그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 사회이동연구 분야의 본격적인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자료수집이나 분석과정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만치 앞으로 노동패널조사가 이 목적을 위해서도 훌륭한 자료 원천으로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함의의 하나이다.

I. 머릿말

계층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계층론자들이 전통적으로 크게 의존해 온 것 가운데 하나는 세대간 사회이동표이다. 그것은 특히 부친세대의 직업과 자식세대의 직업을 교차시킨 세대간 직업이동표가 거시수준에서 한 사회의 직업구조가 겪어 온 장기적인 변화의 양태와 정도를 밝히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시수준에서 각 개인이 출신계급(origin class)에 따라 얼마나 상이한 사회이동 또는 지위세습의 확률에 종속되어 왔는지를 가늠케 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최근에 이루어진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이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사회의 사회이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견주어보려는 목적을 지니며,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과 미국의 사회이동연구들을 참조하여 국제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모색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II. 노동패널 자료의 사회이동표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여타 자료 분석 결과와의 비교

1. 노동패널 자료의 5 X 5 사회이동표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 행의 개수가 I이고 열의 개수가 J인 I X J 세대간 직업이동표는 부친의 직업을 I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자식의 직업을 J 개의 범주로 나누어 교차시킨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흔히 이용되는 것은 부친과 자식의 직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범주를 적용한, 다시 말해서 I = J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I X I 정방형 행렬 형태의 교차표이다. 아무튼 차원이 I X J인 세대간 직업이동표에서 특정 칸--i 번째 행, j 번째 열에 놓인 것을 (i, j) 칸이라고 하자--에 발견되는 관찰도수 F_{ij} 는 i 번째의 출신계급 내지 직업범주로부터 j 번째의 도달계급 내지 직업범주(destination class)로 이동한 사람들의 수를 가리킨다. 또한 각 행과 열의 관찰도수들을 합한 값인 주변도수(marginal frequencies)들은 각각 부친세대와 자식세대의 직업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사회이동 연구의 발달을 위해 어떤 직업범주 내지 계급 분류로 사회이동표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주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이동표를 구성하는 직업범주 내지 계급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들의 분석 결과를 서로 견주어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이동표를 분석하는 방법이 매우 다기다양하다는 점도 계층연구 내의 혼란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먼저 노동패널 자료로부터 세대간 사회이동표를 구성하여 기술통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약지수들을 알아 본 다음, 통과모수모형과 일련의 결합모형들을 적용하여 조명하는 순서를 밝기로 한다. 그리고 사회이동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부친과 본인의 직업을 각각 상-하급 정신근로자, 상-하급 육체근로자 및 농민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교차시키도록 한다. 이 때, 비농업분야의 네 직업범주는 상급정신근로자가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를, 하급정신근로자가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를, 상급육체근로자가 숙련공을, 그리고 하급육체근로자가 반숙련공과 미숙련공을 각각 가리킨다.

<표 1>은 노동패널조사 자료의 남성 가구주 하위표본을 대상으로 한 세대간 직업이동표이다. 대상을 남성 가구주에 국한시킨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구구성이나 출신률의 차이가 미칠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본인의 직업은 7차 조사에서 알아본 본인의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직업이동표에서 부친의 직업범주와 본인의 직업범주가 같은 불이동 내지 세습의 비율은 21.4%이며, 따라서 세대간 직업이동을 체험한 경우의 비율은 78.6%이다. 그리고 이동의 경우를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68.9%와 9.7%로 나타난다. 또한 세대간 직업구조의 차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이동 비율을 가리키는 구조이동율(Δ)은 54.0%이며, 총이동율에서 그 값을 빼서 구하는 순환이동율은 24.5%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요약지수들은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1, 2차 불평등조사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총이동율, 상승이동율, 구조이동율에서 크게 불거져 나타난 것으로 드러난다. 즉, 1, 2차 불평등조사에서는 각각 불이동율이

41.6%와 34.3%, 총이동율이 58.4%와 65.7%, 상승이동율이 47.9%와 44.4%, 하강이동율이 10.5%와 21.2%, 구조이동율이 39.8%와 30.1%, 순환이동율이 18.6%와 35.6%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차중천, 1992: 104-105; 1997: 99).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그것들이 제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과연 어떤 뚜렷한 추세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표본추출이나 분석대상 제한을 비롯한 조사/분석과 정상 차이에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표 1> 노동패널조사 자료의 남성 가구주들의 부친 직업과 본인의 주된 일자리를 교차시킨 세대간 직업이동표와 유출/유입률

(1) 관찰도수 (N=2,463)

부친\본인	상급정신근로자	하급정신근로자	상급육체근로자	하급육체근로자	농민
상급정신근로자	28	33	6	13	3
하급정신근로자	94	228	91	84	7
상급육체근로자	18	51	34	37	3
하급육체근로자	19	85	43	55	2
농민	100	472	311	463	183

(2) 유출률

부친\본인	상급정신근로자	하급정신근로자	상급육체근로자	하급육체근로자	농민
상급정신근로자	33.7%	39.8%	7.2%	15.7%	3.6%
하급정신근로자	18.7%	45.2%	18.1%	16.7%	1.4%
상급육체근로자	12.6%	35.7%	23.8%	25.9%	2.1%
하급육체근로자	9.3%	41.7%	21.1%	27.0%	1.0%
농민	6.5%	30.9%	20.3%	30.3%	12.0%

(3) 유입률

부친\본인	상급정신근로자	하급정신근로자	상급육체근로자	하급육체근로자	농민
상급정신근로자	10.8%	3.8%	1.2%	2.0%	1.5%
하급정신근로자	36.3%	26.2%	18.8%	12.9%	3.5%
상급육체근로자	6.9%	5.9%	7.0%	5.7%	1.5%
하급육체근로자	7.3%	9.8%	8.9%	8.4%	1.0%
농민	38.6%	54.3%	64.1%	71.0%	92.4%

2. 통과모수모형을 이용한 분석

세대간 직업이동표는 직업구조와 그것의 재생산 과정을 마치 하나의 '완비된 전체'(a self-contained entity)인 양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도수의 행렬이 표본추출상의 잘못이나 특정 범주의 이용에 따라 쉽사리 영향을 받게 되어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종 사회이동표 분석모형들은 대부분 바로 그러한 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바 (Hout, 1983), 다양한 이동표 모형들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먼저 주목하려는 것은 통과모수모형(crossings

parameters model)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1, 2차 불평등조사의 사회이동표 자료에 대한 필자의 일련의 분석을 통해서 통과모수모형 계열의 모형들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차중천, 1992, 1994, 1997). 통과모수모형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이동을 일종의 장애물 경주와 같이 취급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출발점과 도착점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적어도 출발에서 도착 사이에 일어난 사회적 지위--그것이 이동표의 분류기준에 따라 직업범주, 계급 또는 다른 그 어떤 계층으로 나타나는 간에--상의 변화를 사회이동 당사자가 일련의 장애물을 겪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대수선형모형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기법으로 표현하자면,

$$\log F_{ij} = a_0 + a_{1j} + a_{2j} + c_{ij} \quad (1)$$

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c_{ij} 는, $i > j$ 일 경우에는,

$$c_{ij} = \sum_{s=j}^{i-1} v_s$$

그리고 $i < j$ 일 경우에는,

$$c_{ij} = \sum_{s=j}^{j-1} v_s$$

를 각각 가리킨다. 그러므로, 예컨대, <표 1>의 패널 (1)과 같은 5 X 5 사회이동표에서는 c_{ij} 가 v_1, v_2, v_3, v_4 라는 네 가지 하위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c_{ij} 행렬은 [그림 1]의 패널 (1)과 같으며, 그것을 이루는 v_1, v_2, v_3, v_4 네 단위행렬들은 패널 (2)에 제시된 (i)-(iv)까지의 행렬들과 같다. 단위행렬 가운데 v_1 은 상·하급정신근로자 사이를 이동할 때, v_2 는 하급정신근로자와 상급육체근로자 사이를 이동할 때, v_3 은 상·하급육체근로자 사이를 이동할 때, 그리고 v_4 는 하급육체근로자층과 농민 사이를 이동할 때 각각 응답자들이 불가피하게 경험하였다고 여겨지는 어려움을 불이동의 그것과 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통과모수모형을 5 X 5 사회이동표를 분석에 적용할 때의 c_{ij} 모수행렬과 그것의 구성요소인 네 개의 vs 단위행렬

(1) C_{ij} 모수행렬

0	V_1	V_1+V_2	$V_1+V_2+V_3$	$V_1+V_2+V_3+V_4$
V_1	0	V_2	V_2+V_3	$V_2+V_3+V_4$
V_1+V_2	V_2	0	V_3	V_3+V_4
$V_1+V_2+V_3$	V_2+V_3	V_3	0	V_4
$V_1+V_2+V_3+V_4$	$V_2+V_3+V_4$	V_3+V_4	V_4	0

(2) C_{ij} 모수행렬을 이루는 네 개의 V_s 단위행렬

(i) V_1

0	V_1	V_1	V_1	V_1
V_1	0	0	0	0
V_1	0	0	0	0
V_1	0	0	0	0
V_1	0	0	0	0

(ii) V_2

0	0	V_2	V_2	V_2
0	0	V_2	V_2	V_2
V_2	V_2	0	0	0
V_2	V_2	0	0	0
V_2	V_2	0	0	0

(iii) V_3

0	0	0	V_3	V_3
0	0	0	V_3	V_3
0	0	0	V_3	V_3
V_3	V_3	V_3	0	0
V_3	V_3	V_3	0	0

(iv) V_4

0	0	0	0	V_4
0	0	0	0	V_4
0	0	0	0	V_4
0	0	0	0	V_4
V_4	V_4	V_4	V_4	0

이 모형을 노동패널조사 자료의 세대간 직업이동표에 맞추어 본 결과, 적합도는 $G^2=33.2(d.f.=12)$ 로 비교적 양호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1, 2차 불평등조사의 세대간 직업이동표 자료에 대해 같은 모형을 적용했을 때 얻어진 적합도 $G^2=18.4$ 및 19.3과 비교해도, 표본크기의 차이를 감안하면, 대동소이하다고 여겨지는 값이다. 참고로 1973년에 실시되었던 미국 OCG-II 조사의 세대간 사회이동표 자료에 대한 이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면 $G^2=89.9$ 로 나타나는데, 표본 크기가 2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값 역시 탁월한 적합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드러난 1, 2차 불평등조사 자료와 미국의 OCG-II 조사 자료의 v_1, v_2, v_3, v_4 의 모수추정치들은 각각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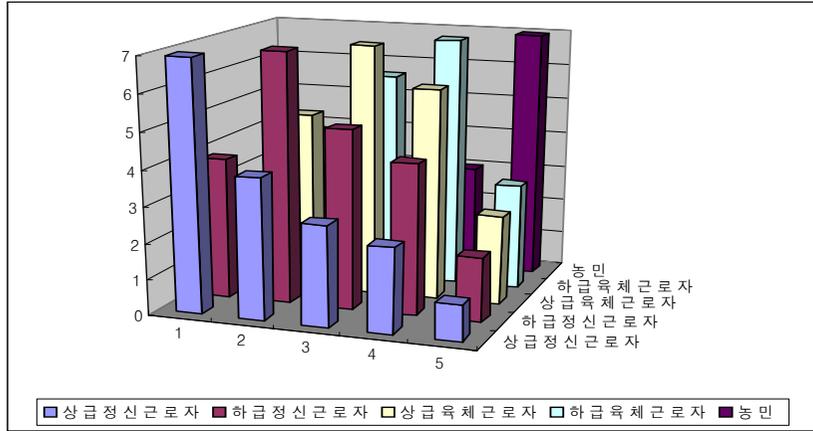
<표 2> 통과모수모형을 노동패널조사와 1, 2차 불평등조사 및 미국 OCG-II 조사의 세대간 직업이동표 자료에 맞추었을 때의 통과모수 v_1, v_2, v_3, v_4 의 추정치와 표준오차

모수	노동패널조사	1차 불평등조사	2차 불평등조사	OCG-II 조사
v_1	-0.576(.122)	-0.721 (.118)	-0.334 (.102)	-0.426 (.024)
v_2	-0.338(.060)	-0.302 (.094)	-0.283 (.084)	-0.368 (.021)
v_3	-0.171(.064)	-0.004 (.102)	-0.159 (.098)	-0.294 (.017)
v_4	-0.855(.139)	-1.074 (.117)	-0.915 (.135)	-1.403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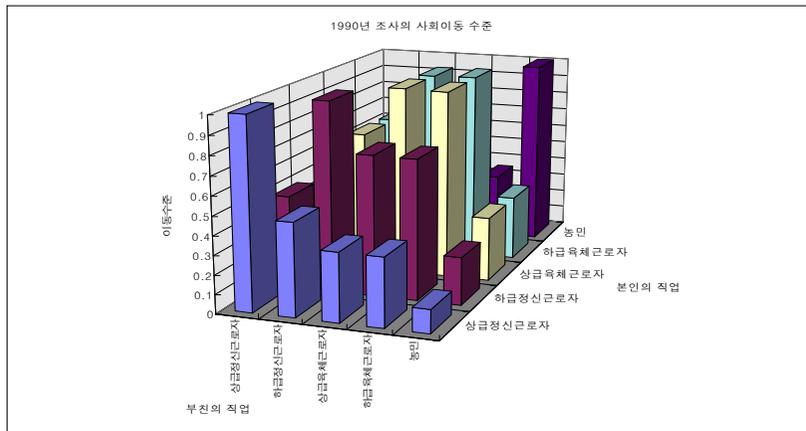
c_{ij} 모수들은 상기 v_s 추정치들로부터--그것들의 선형결합을 통해서--얻을 수 있고, 또한 c_{ij} 모수의 역대수를 취하면, 불이동의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특정 사회이동의 경우 상대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통과모수모형에 의해서 시사되는 세대간 사회이동표들의 이동 체제(mobility regime)를 노동패널조사, 1, 2차 불평등조사와 미국의 OCG-II 조사에 대하여 3차원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2]의 그래프들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통과모수모형을 노동패널조사, 1, 2차 불평등조사 및 미국 OCG-II 조사의 세대간 직업이동표에 맞추었을 때 얻어지는 이동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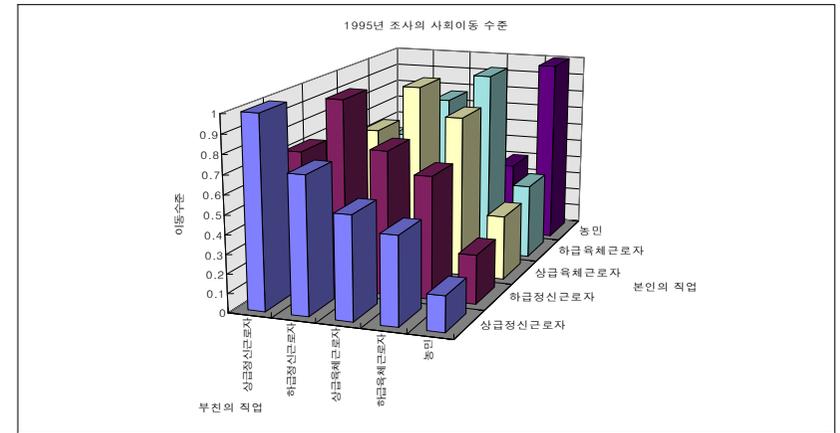
(1) 노동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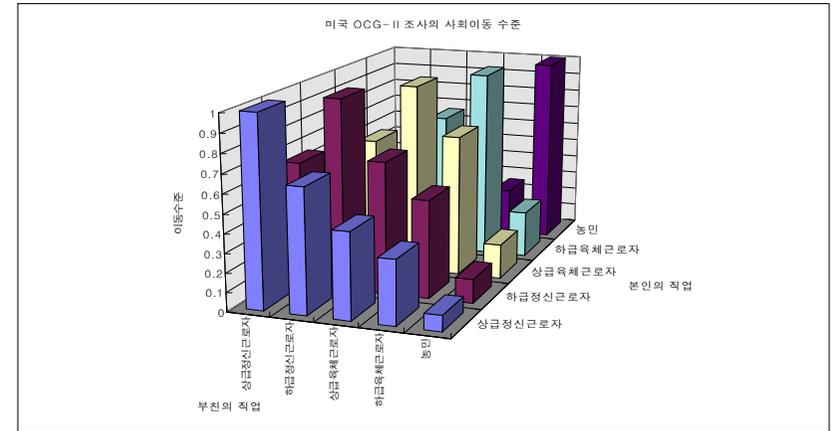
(2) 1차 불평등조사



(3) 2차 불평등조사



(4) 미국 OCG-II 조사



이 그래프들은 모두 불이동의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특정 사회이동을 경험하는 경우의 상대적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v_1, v_2, v_3, v_4 의 모수추정치들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결과들은 불이동의 경우에 비해서

- 1)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상·하급정신근로자 사이를 이동했을 때가 .562배, 하급정신근로자와 상·하급육체근로자 사이를 이동했을 때가 .713배, 상·하급육체근로자 사이를 이동했을 때가 .843배, 그리고 하급육체근로자와 농민 사이를 이동했을 때가 .425배로 나타나며,
- 2) 1차 불평등조사에서는, 같은 순서대로 각각 .486배, .739배, .996배, 그리고 .342배로 나타나고,
- 3) 2차 불평등조사에서는, 같은 순서대로 각각 .716배, .754배, .853배, 그리고 .401배로 나타나고,
- 4) 미국 OCG-II 조사에서는, 그 값이 각각 .653배, .693배, .746배, 그리고 .246배로 나타나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이동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하급육체근로자와 농민 사이를 이동할 때가 가장 어렵고, 그 뒤를 상·하급정신근로자 사이를 이동할 때, 하급정신근로자와 상·하급육체근로자 사이를 이동할 때의 순서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자료가 한결같이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러나 노동패널조사나 미국 OCG-II 조사 자료와는 달리 1, 2차 불평등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상·하급육체근로자 사이를 이동했을 때의 상대적 확률을 나타내는 v_3 모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몇 차례의 조사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표본추출상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도로 면밀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필자가 비교적 최근에 시도한 연구 가운데에는 3차례에 걸친 불평등조사가 축적된 것을 활용하여 10여 년 동안에 걸친 사회이동 추세를 분석하려고 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차중천, 2002). 동 논문은 3차례 조사에서 얻어진 3 X 3 세대간 직업이동표에 대하여 통과모수모형과 더불어 일련의 결합(동 논문에서는 “상호연관”으로 지칭)모형, 대각선외부완전이동모형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특히 결합모형을 세 사회이동표로 이루어진 3차원 교차표에 적용할 때, 1, 2차 조사의 결과가 비슷하고, 3차 조사의 그것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인(constrained) 이질적 열효과모형이 보다 잘 들어맞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사의 차례를 k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질적 열효과모형 하의 기대도수에 대수를 취한 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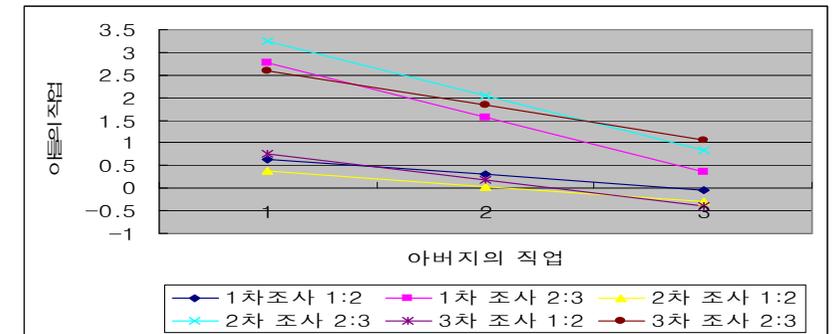
$$\log F_{ijk} = a_0 + a_{1j} + a_{2j} + a_{3k} + a_{13jk} + a_{23jk} + b_{2j} \cdot ik \quad (2)$$

로 표시할 수 있는데, 1, 2차 조사의 $b_{2j} \cdot ik$ 모수를 같게 하는 제약을 부과한 제한적인 이질적 열효과모형의 부합도(G^2)는 54.191(d.f.=8)로 나타나서, 모수 제약을 부과하지 않은 이질적 열효과모형의 그것과 비교해서 부합도는 엇비슷한 채로 자유도 2만큼의 득을 본 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곧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b_{2j} \cdot ik$ 모수추정치들을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표 3>과 [그림 3]은 바로 이와 같은 제한적인 이질적 열효과모형을 3차원 교차표 자료에 맞춘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아버지의 직업범주가 i 로 주어졌을 때, 자식이 인접한 두 직업범주 j 와 $j+1$ 사이에서 보다 높은 계급인 j 에 소속될 확률의 Φ_{ijk} 로짓 값들을 나타낸다. 이 Φ_{ijk} 로짓 값들은 아버지의 직업범주가 내려감에 따라 기울기가 일정한 선형을 그리며 감소하는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는 Φ_{i1k} 가 .3403씩, 그리고 Φ_{i2k} 가 1.204씩 줄어드는 반면, 3차 조사에서는 Φ_{i12} 가 .579씩, 그리고 Φ_{i22} 가 .7675씩 줄어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표 3> 불평등조사에서 얻어진 사회이동표들에 대하여 1, 2차 조사의 열효과가 동일하며 3차 조사의 그것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인 이질적 열효과모형 하에서 추정된 Φ_{ijk} 로짓

행	1990년		1995년		2000년	
	1열	2열	1열	2열	1열	2열
1	.638	2.759	.383	3.246	.762	2.599
2	.298	1.555	.043	2.041	.183	1.832
3	-.043	.351	-.297	.837	-.396	1.064

[그림 3] 불평등조사에서 얻어진 사회이동표들에 대한 1, 2차 조사의 열효과가 동일하며 3차 조사의 그것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인 이질적 열효과모형의 추정 결과



주: 단, 직업 1, 2, 3은 각각 정신근로자, 육체근로자, 농민을 가리킴.

이제 노동패널조사, 1차 불평등조사, 일본 1995년 SSM조사 및 미국 OCG-II조사의 5 X 5 세대 간 사회이동표에 대하여 일련의 결합모형을 적용해보면,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 결과들 역시 모두 열효과모형이 상대적으로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 4> 노동패널조사, 1차 불평등조사, 일본 1995년 SSM조사 및 미국 OCG-II 조사 자료의 5 X 5 세대간 사회이동표에 대하여 결합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모형	d.f.	G^2			
		노동패널	1차 불평등	1995년 SSM	OCG-II
완전이동모형	16	248.66	308.62	556.24	6170.1
일양적결합모형	15	47.51	101.88	273.22	2280.7
행효과모형	12	42.55	96.24	249.41	2080.2
열효과모형	12	31.85	54.79	200.49	903.8
행렬효과모형-I	9	27.24	49.62	179.01	877.8

III.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패널조사 자료의 남성 가구주 하위표본을 이용하여 5 X 5 사회이동표를 구성하고, 그것을 불평등조사, 일본 SSM조사, 그리고 미국 OCG-II조사의 그것들과 함께 통과모수 모형 및 일련의 결합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이 시도와 같은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대체로 유사하다고 보아도 좋은 패턴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사회이동 국제비교 시도는 국제적으로 에릭슨과 골드소프(Erikson and Goldthorpe, 1992)나 그라스키와 하우스(Grusky and Hauser, 1984)를 위시한 훌륭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고, 일본측에서의 최근 성과로는 이시다(石田 浩, 2000)를 들 수 있으며, 국내 학계에서도 필자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추구해 왔을 뿐 아니라(차종천, 1987, 1990, 1994, 1997, 2002, 2005), 방하남·이성균(1996) 등의 연구들도 중요한 기여로 꼽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여전히 자료수집이나 분석과정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노동패널조사가 이 목적을 위해서도 훌륭한 자료 원천으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차종천. 1987. “경제발전과 사회이동의 관계에 대한 대수선형모형 분석의 검토: Goldthorpe 비교 사회이동론의 일관성과 비일관성,” 『한국사회학』 21(겨울): 187-208.

_____. 1990.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나남.

_____. 1991. “남성 세대간 사회이동에 대한 상호연관모형 분석,” 『한국사회학』 25(겨울): 155-175.

_____. 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71-140쪽.

_____. 1994. “사회이동표 분석방법론의 발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한울, 222-261쪽.

_____. 1997. “직업구조와 분배의 불평등,” 석현호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출판, 95-126쪽.

_____. 2002.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추세: 1990-2000,” 『한국사회학』 36(2): 1-22.

_____. 2005. “現代韓國における社會移動: 日本との比較可能性.” 園田茂人 編, 『東アジアの階層比較』, 中央大學出版部, 59-77면.

방하남·이성균. 1996. “新興開發國에서의 構造變動과 世代間 階級移動: 한국과 대만의 경우,” 『한국사회학』 30(가을): 575-604.

石田 浩. 2000. “産業社會の中の日本: 社會移動の國際比較と趨勢,” 原 純輔 編, 『日本の階層システム 1: 近代化と社會階層』. 東京大學出版會, pp. 219-248.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Grusky, David B. and Robert M. Hauser. 1984. “Comparative Social Mobility Revisited: Model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16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9-38.

Hout, Michael. 1983. *Mobility Tables*. Beverly Hills: Sage.